

건전 공기업 문화 확산 로고송 '화제'

전북문화관광재단-지역 예술인-도공 전북본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 함께 진행

음악은 '옹헤야' 선택 가사 개사, 소리꾼이 노래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함께 건전한 공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로고송을 제작해 화제다. 이 사업은 리더예술인 이관중(만화)작가와

서완호(미술), 이희정(국악), 유인하(음악), 하미숙(문학) 예술인이 참여,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북본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인들은 청렴 및 조직문화 개선과 건전한 공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본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캠페인 송(노래)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전북본부가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음악은 밝고 경쾌한 가락의 '옹헤야'를 선택해 하미숙 작가가 가사를 개사했으며, 이희정 소리꾼이 창을 했다. 지난 10월 29일 전주 시내 팔콘뮤직아카데미에서 전북본부 직원들과 참여 예술인들이 함께 녹음을 진행, 메인 부분은 이희정 소리꾼이 후렴부분은 다 같이 참여해 완성했다.

사업초기에는 지위와 상관없이 시니어 직원과 주니어 직원이 함께하는 연극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직원이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로 방향을 바꿔 청렴을 주제로 문자도(文字圖) 텍스트 그림을 그렸다.

한편, '202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 전북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후원하고 재단이 주최하는 지역예술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업(관)과 예술인 간 협업프로젝트로 다양한 직무영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리더예술가 6명, 참여예술인 24명을 선정해 도내 6개 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사업팀(063-230-744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시민 전시 참여자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8일까지

시민열린·장미갤러리 등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8일까지 2021년도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와 장미갤러리 전시 참여자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군산시민과 군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는 총 6팀 정도, 장미갤러리는 3팀 정도 선발 예정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시 참여가 확정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각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전시 공간 제공과 함께 전시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배너 등)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

특정 지역이나 기관, 단체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전시나 단체 등의 일회성 행사와 관련된 전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년 연속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자별 5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시 참여 신청서는 군산시 고시공고란 또는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사무실에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며,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2021년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시민 참여 전시는 예술성 높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에게 전시 기회 제공을 통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객들에게 수준있는 군산시의 문화예술작품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021년에도 시민열린갤러리와 장미갤러리 전시자 공개모집에 군산의 역량있는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진동인 FOCUS-99의 6개팀의 전시를, 장미갤러리에서는 허하반영 작가의 개인전과 함께 이은숙 문인화 작가의 4개 팀의 전시를 추진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인물 통해 인간의 내면 묘사'

무주 최북미술관서 이주리·장우석 2인전 내년 1월까지

인물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묘사해 관심을 끌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이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성황리에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주리·장우석 2인전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열리며, 인물(신체와 얼굴)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욕망을 여과없이 조명, 눈길을 끌고 있다.

인물을 통해 역사와 사회현상을 고찰할 수 있는 회화 작품 23점이 전시돼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장우석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각각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영상이나 사진에서 형상을 흡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조리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작가의 내면이 표출되고 약자와 권력자 사이의 간격을 극대화한 느낌을 들게 한다.

약자는 있는 힘을 다해 애절하게 울부짖지만 권력자의 초상들은 침묵하고 있는 설정을 둔

점이 특징이다.

또 이주리 작품은 우리 삶의 모순과 이중성 안에 욕망과 희망을 드러내 우리의 삶이 안착과 탈피라는 두가지 명제속에서 갈등하고 실현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몸'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작업들로 표면적 방법들만 다루는 요즘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한편,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한 이주리 작가는, 개인전 22회 단체전 150여회 등 다수 참여했고 장우석 작가는 전북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와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개인전 9회와 단체전 90여회 출품하는 등 모두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달래학교 할머니들, 작가되다

완주군, 동화책 '칠십고개'

그림책 '살아온 세월 중

가장 행복하지' 등 2권 출간

할머니들의 손글씨 등 실어

완주군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할머니들이 직접 쓰고 그린 동화책과 그림책이 출간됐다.

8일 완주군은 동화책 '칠십고개', 그림책 '살아온 세월 중 가장 행복하지' 2권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동화책 '칠십고개'는 교육부 성인문해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진행된 것으로 지역 동화작가를 초빙, 진달래학교 삼례지역 심화반 어르신 5명과 함께 전래동화를 각색하고 삽화를 그려 완성했다.

주요내용은 "구렁이의 원한, 호랑이와 여우의 금강산 주인공다툼. 천 냥 내기 수수께끼, 끝없는 이야기, 용왕의 딸과 소금장수" 다섯 가지로 할머니들의 손글씨를 실어 정감을 살렸다.

또한 '살아온 세월중 가장 행복하지'는 작년 '나를 보고 예쁘게 뽀얗'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그림책으로, 진달래학교 삼례, 비봉, 고산지역 34명 어르신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지만 지금도 그림 그리고 공부하는게 좋다"며 "글을 쓰는 몇 달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딸이 기대한다고 했는데 멋진 책이 나와 즐겁고 빨리 자랑하고 싶다"고 작가가 된 소감을 전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장은 "이번 책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어르신들 삶 속에서 동화책과 그림책 수업이 특별하고 의미있



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들어진 동화책, 그림책, 성과책 등을 소개하는 '평생 학습 온(溫)택트 성과 공유회' 행사를 12월 중순경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